시민과 함께 2018 / 3월 2주차

■ 연구원 소식

○ 3월 12일(月) :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효자청소년문화의집과 교육청 공동사업 회의 (3월 6일)

: 2018년 전북교육청 방과후 사업과 관련하여 효자청소년문화의집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연구원의 협약기관으로 2016년부터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거주 중학생과 함께 마을역사, 지도 제작 등의 내용으로 총 6개월여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규 후원회원 가입 (양경남 회원, 편용우 회원)

: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김병문 이사장님 추천으로 서울에 사시는 **"양경남 님"**, 이정욱 평의원 추천으로 전주에 사시는 **"편용우 님"**께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카쓰라지마 노부히로 교수 일행 연구원 방문 (3월 8일)

: 일본 리츠메이칸대의 카쓰라지마 노부히로 교수께서 전주대학교 특성화사업단의 콜로키움 강의로 한국에 오셨다가 강의가 끝난 뒤, 컨소시엄 기관인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홍성덕 부원장께서 소장도서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소개 하였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49차 문화강좌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49차 문화강좌가 "**3월 24일(토) 16시**"에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문화강좌는 **"목마와 숙녀, 그리고 박인환"**이라는 책을 통해 박인환 시인의 주요작품인 <목마와 숙녀>를 해석해 낸 저자 **"김다언"** 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이사께서 추천한 이번 문화강좌 주인공인 김다언 작가(본명 이창호)는 본업이 치과의사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분투했던 작가가 지천명을 넘어 문학을 통해 다시 사람을 찾아가는 내용을 전달할 이번 문화강좌는 시낭송과 음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의 미래를 모색하는

제49회 문화강좌

※ 작가를 제외한 출연진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 제 ॥ 목마와 숙녀, 그리고 박인환

강 사 ॥ 김다언 (작가, 치과의사)

언 제 ॥ 2018년 03월 24일(토) 오후 4시

어디서 ॥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참가비 ॥ 무료 **문 의** ॥ 063-286-3005

주 최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자소개

왕유(王維, 699-759) - "시 속에 그림이 들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불(詩佛)'이라는 칭호를 얻은 자연시인이다. 현존하는 시는 400여 수인데, 그 가운데 3분의 2는 근체시이고, 나머지는 고체시이다. 전원의 풍경과 한적한 정취를 노래했으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노래했다.

▌작　품

輞川閑居 贈裴秀才迪(망천한거 증배수재적)　망천에서 한가롭게 살며 수재 배적에게 지어준 시

寒山轉蒼翠(한산전창취)	날씨 쌀쌀함에 산은 더욱 푸르고
秋水日潺湲(추수일잔원)	가을날의 시냇물 날마다 졸졸 흘러
倚杖柴門外(의장시문외)	지팡이 집고 사립문 밖으로 나가
臨風聽暮蟬(임풍청모선)	바람 쐬며 저녁나절 매미소리 듣노라니
渡頭餘落日(도두여락일)	나루터엔 석양이 아직 남았고
墟里上孤烟(허리상고연)	옛 마을에 외로운 연기 피어오른다
復値接輿醉(부치접여취)	그래서 접여 같은 그대 만나 술에 취해
狂歌五柳前(광가오류전)	망천장 앞에서 미친 노래 부른다

▌감　상

접여(接輿)'는『논어(論語)』에 나오는 인물이다.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거짓으로 미친 척하면서, 초야에 묻혀 살아갔던 은자의 이름이다. '오류(五柳)'는 진(晉)나라의 은일시인이었던 도잠(陶潛)의 아호(雅號)다. 그는 자연을 벗 삼고 살아가는 자신의 집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었기에, 스스로 '오류선생'이란 호를 지녔다. 이것이 호의 기원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오류'가 그 옛날의 도잠처럼 자연에 묻혀 사는 왕유 자신의 망천장을 가리킨다.

■ 역사속의 오늘

▮ 형제복지원, 담장이 무너지다 - 1987년 3월 22일 ▮

1975년 공포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형제복지원의 부랑인 수용이 공식화된 후 1987년까지 계속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이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서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수용되었다. 명목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부랑인에 대한 '복지 강화'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경찰이 실적을 목표로 노숙인이나 고아 등은 물론이고 통금시간 이후에 거리를 배회하던 사람들까지 무작정 잡아다가 강제로 감금하는 일이 잦았다. 경찰의 임무는 거기까지였다. 복지원 입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실태점검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원 홍보행사 등을 통해 종종 세간에 모습을 나타낸 입소자들은 늘 깔끔한 활동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입소자들의 삶은 "개나 소"와 다름없었다. 강제 노동은 기본이고 저항하는 이에 대한 구타, 여성과 일부 남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도 일상이었다. 강제 입원에 저항했던 성인이나 탈출 실패자에게는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가 사망했다.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군대와 같이 각 100명 안팎인 28개 소대를 편성해 소대장과 조장이 재량껏 구성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소수에게만 폭행 등의 권한을 용인함으로써 같은 입소자들끼리 감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식생활도 처참했다. 도축장 폐기물에 가까운 선지를 넣은 소금국과 수확을 포기해 썩어가는 썩은 배추로 담근 김치, 썩은 전어로 담근 젓갈 등이 반찬으로 나왔다.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각종 질병도 발생했지만 치료는 없었다.

폐결핵에 걸린 입소자들은 아예 별도의 소대로 지정해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공간에 몰아넣음으로써 그저 죽을 시간만 기다리게 만들었다. 병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식료품 공장에서 식품을 만들었지만 모두 외부로만 판매됐고 복지원 증축, 울주 작업장 등도 모두 강제 동원으로 진행됐다.

죽어서도 인권은 없었다. 일부 시신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300만~500만원의 돈을 받고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
1986년 12월 울주군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우연히 입소자들의 모습을 목격한 김용원 변호사(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가 시작한 수사 이후 1987년 1월 복지원 문서상으로 확인된 수용자는 3174명. 사망자는 무려 6분의 1에 달하는 513명이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입소자 1명이 사망하자 35명이 단체로 탈출하게 되며 세상에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해 1월 일어난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전긍긍하던 전두환 정권은 피해자 지원 등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입소자들을 일시에 다시 거리로 내던져 사회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부랑인에 대한 격리 논란을 부추겼다.

당시 검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수뇌부의 반대로 울주 노역장에 대한 실태점검만 마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담당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18대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당시 부산지검장이 욕설을 퍼부으며 수사진 철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결국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근에 대해 살인, 폭행, 성폭행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못한 채 국가보조금에 12억원 중 일부인 7억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감금죄로만 재판에 넘겼다.

1심법원은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000만원을 선고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2심법원이 징역형을 4년으로 줄였는데 대법원은 이후 두 차례나 파기환송을 하며 이를 2년 6월까지 감형시켰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무죄 파기 환송한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유일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정권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인근에 대한 정부의 호의적인 태도는 그가 1981년 국민포장 석류장,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여받은 일에서도 알 수 있다.

사실 그대로 박인근이 1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지만 2년6개월의 교도소생활을 마친 후 다시 승승장구했다. 출소 후 그가 복귀하자 형제복지원은 수차례의 개명 끝에 느헤미야 법인으로 변경됐다. 박인근은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 회장을 지낼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2016년 6월 사망했다.

느헤미야 법인과 산하시설인 '실로암의 집' 등으로 이름만 바꾼 후 계속 운영하던 중 1987년 탈출 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입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법인이 해산되었다. 그러나 해산되기 전까지 부산시의 묵인 아래 온천, 레포츠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며 국내외로 천문학적인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산시는 박인근 일가의 법인자산 횡령이 드러나자 뒤늦게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국내외로 은폐한 법인 자산을 규명해내지 못한 채 법인이 해산되고 말았다. 30년 넘게 고통받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해 11월 7일부터 형제복지원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 미화와 사회 질서를 빌미로 민인을 감금하도록 지시하고 실상이 폭로될 듯하자 대책 없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국가였다. 하지만 본질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인이 약탈한 후 우리 모두가 방관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했던 것을 사과하자. 그것은 담장 안으로 느닷없이 끌려갔다가 담장 밖으로 갑자기 던져진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기존에 형제복지원이 있던 자리는 지금 현재 주례동 LG아파트, 반도 유보라 아파트, 고려아펠리아 아파트 및 부산주양초등학교가 세워져있다. 형제복지원이 서있던 흔적과 당시의 풍경을 찾아볼 수 없지만 떠도는 망자의 혼과 살아남은 이들의 한은 여전하다.

■ 도농상생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효 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빌겠습니다.